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

5대공약을 성취한 전지전능자라야 구세주이다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은 21년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실체를 바로 말하는 것이 학문이고 바로 아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이라 하는 사실을 이 세상 학문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이세상 만물이 신이다.

바로 이제 모든 물질의 원소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근본요소가 되는 원소 속에는 핵이 있는데, 그 핵이 바로 중성자요, 중성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뱅뱅 뱅뱅 돌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저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힘이 있으니 돌아가지, 저절로 돌아간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돌아가는 힘은 중성자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중성자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인 고로 생명력이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간다고 해야 이치가 맞는 것이죠?

이 세상 과학자들은 중성자의 빛이 최고로 빠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성자는 최고로 투과력이 강한 그러한 물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서울대학교에 와서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이원용 박사가 말하기를, 이제 납의 두께를 그 중성자의 빛이 이제 100억 광년을 투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하였을 때에, 이 사람은 이 단상에 서 그 말을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중성자의 빛은 하나님의 빛인 고로 영원성의 속성의 빛인 고로 투과력이 이제 무한대로 있는 고로 100억 광년의 납의 두께뿐만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납이 있다하더라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투과력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시다.

마귀의신과 하나님의 신의 병존체가 물질이다

그러니까 첨단 과학자가 말한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 밑의 학문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대로 이치가 맞지 않는 참다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물질이 아니고 신이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소 속의 핵 속에는 하나님의 영인 중성자가 있고 이제 그대로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이너스 전자가 마귀의 영인 고로 마귀의 신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병합된 병존체가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라야 공산주의를 없앨 수 있다.

칼 맑스가 ‘신은 없다’ ‘물질 밖에는 없다’고 외쳤으로써 레닌이 이제 그 유물론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제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74년 동안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1981년도부터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외치니 90년도에 가서 공산주의가 일시에 없어졌죠? 그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시다. 그러면 유사 이래 공산주의를 없앨 정도의 이러한 전지전능자가 있었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념이 악한 이념인 고로 그 악한 이념을 구세주라야 없애는 것이지, 그 악한 이념을 구세주가 아닌 다른 존재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는 최고로 능력이 강한 승리의 영인 고로 구세주의 분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악한 이념을 제거했다는 증거이지요? 그것이 제거되었으니가 공산주의가 없는 것이지 그 이념을 제거하지 않았더라면 공산주의가 오늘날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그마치 7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요 이것은 감히 누구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 해본 일이요?

그러나 이 한국에 나타난 구세주가 이제 공산주의의 이념을 확실하게 없앴다



구세주 조희성님

는 것은 뭘 봐서 아느냐 하면, 90년도에 공산주의 국가가 몽땅 무너지면서 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 세 사람에게 불뚝타서 삼일 동안 연금되어 있을 때에, 이를째 되는 날 이 사람이 단상에서 ‘고르바초프가 곧 풀러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튿날 고르바초프가 풀러났죠? 그 당시에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공산주의자 세 사람이 권총을 고르바초프 머리에 대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 구세주의 분신이 나타나서 ‘너희들, 이 고르바초프를 죽이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이 자리에서 나가라. 빨리 도망가라! 도망 안 가면 죽는다!’ 하니까 세 놈이 다 고르바초프를 놓고 도망가고 한 놈은 공황에서 불뚝타고 한 놈은 역전에서 불뚝타고 내무장관 하던 그 놈은 자살하고 말았죠?

그 순간에 고르바초프는 세 놈이 다 도망가고 없는 사이에 문을 열고나온 고로 바로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때 우리 승리제단 꼭대

기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이와 같이 선다는 것이 격암유록 갑을론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61세 때에 ‘갑을각’이 되는 이 승리제단 건물, 이제 ‘내우천간건립장’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십일세 때가 되는 91년도에 이 승리제단 건물 준공 필증이 나왔지요? 또한 91년도에 바로 이 승리제단 건물 위에 무지개가 선다는 말씀이 그 갑을론에 써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바로 1991년 8월 23일 날, 고르바초프가 풀려나오는 날, 바로 이 승리제단 건물 위에 무지개가 선 것이지요? 그걸 보고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세계 공산주의를 없앴다는 걸 확실하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의 증거를 보이면 이 사실을 널리 널리 알려주면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세계 공산주의를 없앴다고 하니가 공산주의가 없어졌고, ‘우리 나라에 태풍이 못 불어온다!’ 그랬죠?

21년 동안 태풍이 못 불어오고 있죠? 또한 ‘우리 나라에 여름장마 못 진다!’ 그랬죠? 여름장마라는 것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어간에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오는 비를 가리켜서 장마비라고 하며, 6월 15일 이전에 오는 비는 봄비요, 7월 15일 이후에 오는 비는 가을비라고 하지요? 그래서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어간에는 비가 안 왔지요? 그래서 여름장마가 진 사실이 없었던 거죠?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풍년들게 한다고 그랬죠? 풍년 안 들었어요? 금년도 풍년이에요?

그러므로 정도령 나타난 다음에 잘 살게 된다는 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남북전쟁 못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 정도령,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5대공약을 했죠?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태풍을 못 오게 하겠다’ ‘여름장마 못 지게 하겠다’ ‘풍년 들게 하겠다’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한다’ 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대 공약이 이루어진 것을 전 세계에 알리야

이러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 만민이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영어로 불란서어로 러시아어로 중국어로 일어로 만들어 세계 만민에게 뿌리면 우리나라가 과연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어간에 장마가 지는 지 태풍이 한국으로 불어오는 지 풍년 드는지 전정할 일어나는 지 알아보겠죠?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를 없앴다는 말을 세계만민이 인정하게 되어 있지요? 무릎을 치고 탄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감로이슬성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 할 때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어보면 바로 이슬성신 내리는 게 찍혀 나오니까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면 이슬성신 사진을 조각을 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헌금을 거두어 사기라고 해가지고 7년 동안 징역 산이 사실이 저절로 무죄가 되겠죠?

죄를 뒤집어 쓴 것을 여러분들이 벗겨줘야 되죠? 이슬성신이 내리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그대로 전 세계로 민방에 알려지면 구세주가 한국에서 틀림없이 나타났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제단이 차고 넘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다 좋게 되겠죠?

그러면 세계 만민들이 은금보화를 신고 물러갈게 됩니다. 격암유록, 성경, 불경에는 다 그렇게 써어 있습니다.

그러서 이제 세계 만민이 다 같이 구원을 얻어야지, 여러분들만 구원 얻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널리 널리 알리도록 하는 운동을 오늘부터 합시다!

한국 사람에게 뿌릴 사천 만 부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영여권 내에 사람들한테 뿌리려면 영여권 내에 사람이 몇 명인가 알아봐가지고 전부 뿌려서 다 알도록 해야 되겠죠? 또한 일본 사람들이 일 억이 넘으니가 일 억이 넘는 사람한테 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전도지를 날려야 되겠죠?

그러하면 우리 승리제단이 제일 큰 종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신임 교인들이 모여들 때에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려면 바로 이제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가르쳐줘야 되고, 일본 사람한테에는 일본말로 가르쳐줘야 되고 하니가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세계 만민들을 향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좋겠어요. 그렇지요?

여기 이 단에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평범한 한국 사람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전 세계 우주를 다스리는 왕중왕이요, 왕중왕! 세계를 다스리는 왕중왕인 고로 이 사람의 얼굴이 제왕상이요, 아시겠어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척 보아서 왕중왕이라는 걸 알아야. 그리고 양손에 임금 왕자를 쥐고 있죠? 양손에 임금 왕자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가슴에는 복두칠성기 깃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어려서 태어났을 때에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의 가슴에 복두칠성을 보고 ‘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큰 인물이 아니고서야 가슴에 복두칠성이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2001. 9. 21 말씀 중에서 말씀 정리/ 박명하



“내가 이제는 이긴자가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말로써 완전히 표현할 수 있겠는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인간의 말은 표현에 제한이 있고 죄인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 사랑에 범주의 차원에서 어찌 영생의 차원이 이해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떨어지는 바람에 목을 매고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새 출발을 해서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의 연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난 1980년 10월 15일에야 해와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이긴자가 되었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가 이긴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기시어 하나님께서 이긴자가 되셨지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 “또 이긴자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기시고 이긴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하였다. 실제로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나를 죽이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와 같이 속으로 대답하였던 것이다. 해와주님께서 “조사장이 이제 잘 이기는데!” 하시므로 “제가 잘 이기나오, 하나님 당신께서 조희성을 점령하시고 계속 이겨 나가시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후 하나님께서 완전히 조희성을 죽이는 데 성공하시고 점령하게 되니, 이 날이 1980년 10월 15일인 것이다.

이긴자가 됐다고 선포하시기 직전에는 이런 시험도 있었다. 해와이긴자가 이긴자를 키우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인 자기를 이긴자로 키우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남을 집중적으로 이긴자로 키운다고 생각되니까 아들 되는 사람이 배가 몹시도 아팠던 모양이다. 평상시 해와 주님이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만 관심을 갖고 특별히 신경을 쓰셨던 것을 늘 속으로 아니꼽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이 늘 마음에 응어리지고 있던 차에다가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는지, 이 사람과 마주치자 느닷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먹 따귀를 갈렸던 것이다. 이 사람은 따귀를 맞는 순간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을 수 없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하고 마



이긴자가 된 날 산에 가니 굵은 나무가 허리를 구부려 절을 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자 아들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덤벼들 줄 알았는데 너무도 담담하게 태연한 고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부리나케 그 자리를 공무니가 빠져라 하고 도망치는 것이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10월 15일에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됐다고 밀실 식구들 앞에서 선포한 날인 것이다. 해와 주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환히

아시고 마침내 이 사람이 완전히 자신을 이기는 층에 들어선 것을 아시고 밀실 식구 전체를 불러 놓은 자리에서 이긴자라고 선포하신 것이었다.

산에 있는 풀과 나무들이 춤을 추다

그렇게 허락함이 떨어진 그날, 여느 때와 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지

계를 지고 산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풀과 나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특별하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풀과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렸다. 이상하게 여겨 주위를 둘러보니, 이게 웬 일인가! 이쪽 나무는 이쪽에서 나를 보고 구부리고, 저쪽 나무도 나를 보고 구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도 기이하게 생각되어 나무들이 왜 그럴까?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실제로 그러니 어리둥절했었다. 산에 들어서있는 주변 공기조차도 미묘하게 요동하며 움직이는 기분을 느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나무들이 한쪽 가지는 위로 향하고 한쪽 가지는 아래로 향하여 마치 사람이 춤사위를 하는 것처럼 움직여가는 것이었다. 나무들이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 그렇구나. 내가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데, 이 나무들이 알아보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풀과 나무들이 마치 ‘이제야 아셨구나!’ 하며 사람이 기뻐서 춤을 추듯 위 아래로 흔들며 움직였다. 이 사람도 그러한 광경을 보고 감격해서 풀과 나무들이 기뻐 날뛰는 가운데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자축했다. 역조창생 인간들과 생명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모든 존재들을 다 내 몸처럼 여기는 대자대비(大慈大悲)한 큰 사랑을 회복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긴자와 온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로 회복되어 일체가 되었음을 알았기에 산천초목이 춤을 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해와주님이 이긴자가 됐다고 하신 후, 그 날 저녁에 숙소에서 그간의 하나님께서 조희성 마귀를 죽이시고 완전히 점령하시시기까지의 과정 내용을 간결하게 노트말로 짓게 되었다. 단 30분 동안에 수정도 하지 않고 써서 밀실에 있던 식구들과 같이 이튿날부터 찬송을 하게 되었다. 해와주님을 비롯한 식구 전체가 찬송을 할 때,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끈고한 사랑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어 통곡의 물음바다가 되었던 것이다.*